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 내가 보여 줄 놀라운 세상의 반의 반의 반도 년 못 본거야**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쓰고, 또 수험번호, 문형(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출수형

[1~5] 다음은 걸그룹 ‘여자친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이다.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 (활기찬 목소리로) 오늘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걸그룹 ‘여자친구’ 분들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일동 : (고개 숙여 인사하며) 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진행자 : ㉠팬클럽 ‘버디’에서 보내온 여러 가지 질문들을 차례대로 하나씩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먹는 멤버는 누구인가요?

여자친구 일동 : (은하는 스스로를 가리키고 나머지 멤버들도 모두 은하를 가리키며) 히히...

은하 : (머쓱하게 웃으며) 으헤헤... 으엇...

소원 : 제 생각에는... 멤버들 모두가 다 잘 먹지만, 좀 먹을 거에 욕심이 많은 친구가 (소탈하게 웃으며) 은하인 것 같아요.

예린 : 재가 하나의 음식을 되게 좋아하면 그것만 엄청 먹거든요. 네... 엄청 먹습니다. 헛.

진행자 : 아하... 다음 질문입니다. 가장 늦잠이 많은 멤버는?

여자친구 일동 : (또 멤버 전원이 은하를 가리키며) 흐하하...

은하 : 제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서 (부끄러운 듯 웃으며) 하하... 그래서 늦게 일어나요. 네... 하하.

진행자 : 그렇군요. 다음 질문입니다. 눈물점이 가장 작은, 그러니까 가장 쉽게 눈물을 흘리는 멤버는?

신비를 제외한 여자친구 일동 : (신비를 가리키며) 하하하...

신비 : (혼자만 엄지를 가리키다가 자신을 가리킨 다른 멤버들을 당황한 듯 둘러보며) ...응?

유주 : 무서워하거나 감동할 때 울잖아.

엄지 : 아아... 음... 옛날에는 저희 멤버들이 울음이 좀 많았었는데, 요즘엔 정말 행복한 일들이 많아서... 하 [A] 하... 버디 덕분이예요. 감사합니다~

진행자 :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소원 양, 리더로서 ㉡ 멤버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소원 : 어... 여자친구는 항상 어떤 순간이 와도 여섯 명이서 푹푹 뭉쳐서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렇게 행복한 에너지로 항상 활동 건강하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멤버들이 최고예요! [B]

예린 : 깨지지 않을 거예요~

진행자 : 네,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자친구 일동 : 지금까지, 여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윗글에 나타난 인터뷰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행자’는 인터뷰를 가볍고 밝은 분위기로 이끌어가기 위해 반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 ② ‘진행자’는 ‘여자친구’에게 인터뷰할 내용의 출처를 미리 안내하고 있다.
- ③ ‘여자친구’는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 ④ ‘유주’는 과거의 사실을 근거로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⑤ ‘소원’은 힘들었던 순간을 언급하며 미래에 대한 포부를 드러내고 있다.

2. 위 인터뷰로부터 알 수 없는 것은?

- ① 가장 많이 먹는 멤버
- ② 울음이 가장 많은 멤버
- ③ 두 번째로 잘 울 것 같은 멤버
- ④ 두 번째로 많이 먹을 것 같은 멤버
- ⑤ 울음이 가장 많은 멤버가 우는 것을 본 멤버

3. [B]의 청자를 ㉠에서 ㉡으로 바꾸었다고 가정할 때,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여자친구’는 팬클럽 ‘버디’ 외의 다른 사람도 들어줄 것이라 생각하고 한 말이겠군.
- ② ‘여자친구’는 미래에도 지금과 같은 행복한 에너지가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을 팬클럽 ‘버디’에게 전하고 있군.
- ③ ‘여자친구’는 과거에는 행복한 에너지로 행복한 활동을 한 적이 없었다는 아쉬움을 팬클럽 ‘버디’에게 전하려 하는 것이군.
- ④ ‘여자친구’는 멤버들이 서로 힘을 합쳐 역경을 이겨냈었던 과거를 언급하며 힘들었던 심정을 팬클럽 ‘버디’에게 토로하고 있군.
- ⑤ ‘여자친구’는 팬클럽 ‘버디’가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렇게 행복한 에너지로 팬클럽 활동에 참여할 거라 확신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군.

※ <보기1>는 학생의 '설득을 위한 화법'에 관한 배경 지식이고, <보기2>은 위 인터뷰를 들으며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다. 이를 바탕으로 4번과 5번의 물음에 답하시오.

4. 학생의 생각과 <보기>를 바탕으로 [A]에 대하여 토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1>

'설득'은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내세워 타인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행위이다. 현대 사회에서 타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설득은 단순한 표현 행위가 아니라 일련의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행위로 기능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진정성 있는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스스로의 생각만으로 이루어진 설득도 논리적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타인의 설득에 담긴 타인의 생각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나아가 타인의 생각에 관하여 설득을 진행할 때에는, 아래에 제시된 세 가지 의도 중 무엇이든 간에, 주장이 명확해야 하며, 그에 관한 근거가 충분해야 한다.

약화	중립	강화
타인의 주장을 무력화시킨다.	타인의 주장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타인의 주장의 설득력을 강화한다.

<보기2>

음... 확실히 전체적으로 재미있고 좋은 인터뷰였지만, '가장 쉽게 눈물을 흘리는 멤버'에 관한 담화에서 '유주'에 대한 '엄지'의 발언이 다소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이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해봐야겠어.

- ① 지원: [A]는 '약화'의 의도를 가졌으나 지칭대상이 상황에 맞지 않은 것 같아.
- ② 철우: [A]는 '약화'의 의도를 가졌으나 현재의 상태를 발언한 것이 상황에 맞지 않은 것 같아.
- ③ 도철: [A]는 '중립'의 의도를 가졌으나 과거의 상태를 발언한 것이 상황에 맞지 않은 것 같아.
- ④ 성도: [A]는 '강화'의 의도를 가졌으나 지칭대상이 상황에 맞지 않은 것 같아.
- ⑤ 유성: [A]는 '강화'의 의도를 가졌으나 과거의 상태를 발언한 것이 상황에 맞지 않은 것 같아.

5. [A]를 자연스럽게 고친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옛날에는 저희 멤버들이 울음이 좀 있었는데 요즘엔 정말 행복한 일들이 많아서 예전만큼 울음이 많진 않아요.
- ② 옛날에는 저희 멤버들이 울음이 없는 편이었는데 요즘엔 정말 행복한 일들이 많아서 행복해서 오히려 더 울음이 많아진 것 같아요.
- ③ 옛날에는 신비가 울음이 좀 있었는데 요즘엔 정말 행복한 일들이 많아서 오히려 더 우는 것 같기도 해요.
- ④ 옛날에는 신비가 울음이 좀 있었는데 요즘엔 정말 행복한 일들이 많아서 예전만큼 많이 울진 않아요.
- ⑤ 옛날에는 신비가 울음이 좀 있었는데 요즘엔 정말 행복한 일들이 많아서 그냥 다 같이 우는 때가 많아요.

[6~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恨)'의 정서는 우리나라의 운문 문학 속에 자리 잡아 온 전통적인 정서이다. 인간이 느끼는 '슬픔'은 한의 정서뿐만 아니라 '원(怨)의 정서' 등 다양한 정서가 내포되어 있다. 그런데 타민족의 운문 문학은 원의 정서가 주를 이루게 되면서, 한의 정서는 한국만의 독특한 정서로 평가받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슬픔은 죽음, 이별, 가난, 신분적 제약 등 다양한 이유에서 촉발되어 왔고, 이에 대응하는 화자의 태도와 견해 또한 매우 다양하게 드러나 왔다.

대표적으로 슬픔을 '선(善)'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소위 '카타르시스 이론'이라 일컬어지는 것이다. 이 이론의 창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비극을 관람하는 것은 관람자가 배우의 정서를 대리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카타르시스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간의 심적인 고통에 대한 예술가들의 모방은 청중의 가슴에 연민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을 추방하고 더 나아가서는 관객의 영혼을 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슬픔을 선으로 인식하는 이들은 슬픔은 병리적인 것으로써 치유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흘러넘치도록 내버려둠으로써 슬픔의 치유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한다. 즉, 슬픔에 빠져 있지만은 않고, 슬픔을 '삶의 원동력'으로 '승화(昇華)'시키는 경지에 이를 때, 슬픔은 '선(善)'으로서 존재 의의를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삶의 원동력으로 승화된 슬픔은 예술가에게 있어서 창조의 원동력, 인격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곤 했다. 한국 운문 문학에서 '한의 승화'를 노래한 시로는 대표적으로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 있다. 한편, 이러한 한의 정서는 오늘날 대중가요까지 이어져 그 자취를 남기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자친구의 「여름비」가 있다. 「님의 침묵」과 「여름비」 모두 이별에서 기인한 슬픔을 승화시켜 화자의 내면의 성장을 이뤄내는 과정이 잘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
 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
 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둥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

(다)

누구에게나 한번쯤
 쏟아지던 여름비처럼
 갑작스레 다가왔었던
 사랑이 있겠죠
 빗소리에 잠도 못 잘 만큼
 그땐 니가 내겐 그랬죠

흠내음을 머금은 나의 감정이
 쏟아내듯이 떨어오네요
 자그마한 우산을
 나누려고 다가오는가 봐
 두근대요
 여름날의 기적일까요

찬란하게 빛나던 시간이었다고
 맑은 여름비처럼 고마웠었다고
 한줄기 빗물처럼 너무 아름다웠던
 투명한 우리들의 이야기

미래는 알 수 없었죠
 스쳐가는 여우비처럼
 바람과는 다르게 자꾸만 엇갈렸었죠
 비가 갠 뒤에 무지개처럼

잠시 머무르진 마요

풀내음을 머금은 나의 감정이
 쏟아내듯이 젖어오네요
 밤하늘의 달마저 가리워지는
 교차점에서 기다려요
 기적은 이루어질까요

찬란하게 빛나던 시간이었다고
 맑은 여름비처럼 고마웠었다고
 한줄기 빗물처럼 너무 아름다웠던
 투명한 우리들의 이야기

하늘에서 내린 눈물 같아
 기억할게
 아지랑이 피어나듯이 설레었다고
 풀잎에 맺힌 이슬비처럼
 기쁘고 때론 슬펐던
 여름날의 추억

아름답게 빛나던 계절이 지나도
 지금처럼 영원히 나를 적셔줄래
 한줄기 빗물처럼 너무 아름다웠던
 투명한 우리들의 이야기

- 여자친구, 「여름비」 -

6.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카타르시스 이론’에서는 슬픔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한다.
- ② 슬픔을 ‘악(惡)’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 ③ 슬픔을 선으로 인식하는 이들은 슬픔은 치유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④ 한국 운문 문학에서 원의 정서를 노래한 시는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⑤ 아리스토텔레스는 관람자의 카타르시스는 배우의 정서로부터 기인한다고 보았다.

7. (나),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절감을 주는 어휘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 ③ 예기치 않은 이별로 인한 서러운 심정이 나타나 있다.
- ④ 관조적인 자세로 대상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
- ⑤ 자연의 변화를 표현하여 화자의 미래를 암시한다.

8. (가)를 바탕으로 <보기>와 (나)의 [A]를 비교 감상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아차! 그제서야 문득 생각이 난 것이다. 난초를 뜰에 내놓은 채 온 것이다. 모처럼 보인 찬란한 햇별이 돌연 원망스러워졌다. 뜨거운 햇별에 늘어져 있을 난초 잎이 눈에 아른거려 더 지체할 수가 없었다. 허둥지둥 그 길로 돌아왔다. 아니나 다를까, 잎은 축 늘어져 있었다. 안타까워하며 샘물을 길어다 축여 주고 했더니 겨우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어딘가 생생한 기운이 빠져나간 것 같았다.

나는 이때 온몸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짐착이 괴로움인 것을. 그렇다, 나는 난초에게 너무 짐넘힌 것이다. 이 짐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다.

- 법정, 「무소유」 -

- ① [A]의 화자와 달리, <보기>의 화자는 자연물에 대한 관조를 통해 정신적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② <보기>의 화자와 달리, [A]의 화자는 대상과의 정서적 합일을 통해 삶에 대한 희망을 되찾고 있군.
- ③ <보기>의 화자와 달리, [A]의 화자는 일상생활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고 있군.
- ④ [A]의 화자와 <보기>의 화자 모두 긍정적 경험에 대한 회고를 통해 삶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고 있군.
- ⑤ [A]의 화자와 <보기>의 화자 모두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스스로 버림으로써 번뇌로부터 벗어나려 하고 있군.

9. <보기>는 한글 맞춤법 제1항에 관한 설명이다. (가)의 단어 중 적용된 예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 ㉡만 충족한 경우 : 한국만의, 병리
- ② ㉡만 충족한 경우 : 평가, 인격
- ③ ㉡만 충족한 경우 : 여름비, 관람자
- ④ ㉠, ㉡ 모두 충족한 경우 : 성장, 원동력
- ⑤ ㉠, ㉡ 모두 충족한 경우 : 피력, 발판

10. (가)와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여름비」에서는 1연의 ‘니’와 후렴구의 ‘우리들’에서 상징된 ‘너’라는 존재와의 사랑을 회상하는 아련한 이야기를 독백의 형식으로 노래하고 있다. 이때,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여름비’가 과거의 ‘우리들의 이야기’를 환기하는 객관적 상관물로 기능한다. 1연의 ‘여름비’가 촉발한 과거는 2연에서 구체화되어 나타나는데, 이를 시작으로 「여름비」에서는 현재와 과거가 계속해서 교차되는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에서조차 과거를 회상하는 구절이 많다는 점에서, 「여름비」의 화자가 노래하는 시간적 배경은 현재보다는 과거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과거에 관한 시상들만, 즉 현재의 시점에서 회상한 과거와, 과거의 시점에서 제시되는 과거를 연결하면 ‘순행적 구성’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구성 방식은 「여름비」를 이루는 서술어의 어말어미와 시어에 주목하면 파악할 수 있다.

시상 전개		서술어, 시어	시제
기	1연, 2연	그랬죠, 떨어오네요	현재 → 과거
	3연	시간이었다고	현재
승	4연, 5연	엇갈렸었죠, 기다려요	현재 → 과거
	6연	고마웠었다고	현재
전	7연	기억할게, 추억	과거 → 현재
결	8연	지금, 적셔줄래	현재

- ① <보기>에는 없지만, 회상의 의미를 지니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던’과 결합한 관형어들도 ‘현재’를 나타내고 있군.
- ② ‘흠내음’을 머금었던 화자의 감정이 ‘너’를 만나고 고조되어 ‘풀내음’을 머금게 되었다는 점에서, ‘과거’의 순행적 구성을 엿볼 수 있군.
- ③ ‘우산’을 나누려고 다가온 ‘너’에게 반한 화자는 ‘빗소리에 잠도 못’ 잤다는 점에서,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여름비’가 내렸었겠군.
- ④ 화자는 ‘하늘에서 내린 눈물’ 같았던 ‘과거’의 슬픔을 승화시켜 ‘현재’에는 ‘지금처럼 영원히 나를 적셔줄래’라 말하며 내면의 성장을 이뤄내고 있군.
- ⑤ 비록 ‘여름날의 기적’은 좌절되지만, ‘현재’에 ‘비가 갠 뒤에 무지개’를 바라보며 ‘과거’의 ‘여름날의 추억’을 ‘찬란하게 빛나던 시간’으로 승화시키고 있군.